

존 테일러가 팔리 피 프랫에게 한 대답

당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회원이었던 존 테일러가 팔리 피 프랫에게 한 말을 읽는다. 팔리는 불과 1년 전, 존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으나 이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팔리 형제님, 형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놀랍군요. 캐나다를 떠나시기 전, 형제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과 그가 시작한 사업이 참되다는 것에 대해 간증하셨으며, 계시와 성신의 은사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께서서는 형제님 자신이나 혹은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이외의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리 형제님, 제가 따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형제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를 통해 저는 그분께로 인도되었으며, 제게는 그 당시 형제님이 기쁨을 느끼시던 것과 똑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육 개월 전에 참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지금도 참됩니다. 그 당시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면, 그는 지금도 선지자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 77쪽)

- 팔리 피 프랫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향한 의심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복된 복음에 대한 존 테일러의 간증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
- 존 테일러의 대답에서 우리는 질문, 의심, 또는 근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